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피난처 있으니(찬79/새70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박세환 장로 2부/심진규 집사 3부/양승화 집사 4부/김진형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네(김형직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Matt.) 11:2-15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8:21-30

말씀 Message 1, 2, 3부..... Rev. Choong Kyung Lee 이충경 목사

흔들리는 순간, 머무는 삶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30)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나는 믿네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 Rev. Choong Kyung Lee 이충경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Done Done(돈돈)

Done Done



이충경 목사 / Rev. Choong Kyung Lee

영어로 'done done'이라고 하면 완전히 끝났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냥 대충 마친 것이 아니라, 정말 다 해냈고 완수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비슷하게 들리는 '돈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돈돈은 일본어 トントン에서 온 말로, 금전적으로 득실이 없고 본전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남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는 상태, 결국 계산해 보니 제자리였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주 이 돈돈처럼 느껴집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이고, 자녀를 다 키워 출가시키고 낫더니 손에 남은 것은 빈 둥지와 늙은 몸뿐인 것 같습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본전 같고, 사랑은 사랑대로 쏟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인생은 남는 게 없는 돈돈일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던 전도자의 오래된 탄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삶을 계산하려 합니다. 내가 들인 시간,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얻은 인정, 내가 잃은 기회들을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끝에서 '남는 게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사람의 계산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돈돈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진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눈물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순종과 사랑은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려고 애쓰다가 지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남기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옮기면 "It is finished.", 곧 'done'이란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 보이던 그 자리가, 사실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크게 남기신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억지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기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수했다고 증명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됐다."고 하시면 그것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시면 그것은 '돈돈'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done done입니다.

내 눈에는 돈돈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내가 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남기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돈돈도 은혜가 되고, done done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몫은 그저 하나님이 완수하시고 남기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In English, when we say, 'done done', it sounds like something having been completely finished. Not merely wrapped up or somewhat completed, but truly accomplished; everything has been done. But in Korean, a similar-sounding expression, 'ttonton'(돈돈), has an entirely different meaning. The word comes from the Japanese トントン and is used to describe a situation in which there is neither gain nor loss, but you simply break even. Nothing is left, and nothing has been lost. And after it is all calculated, you find yourself exactly where you started.

Our lives often feel like this ttonton. We work from early morning until late at night, yet our bank account remains exactly the same. We raise our children and eventually send them off into the world, only to be left with an empty nest and an aging body. We have worked hard, yet it all feels as though we have merely broken even. We have poured out love, yet it seems that very little has returned to us. Could it be that my life is really a ttonton life? A life in which nothing remains? We can hear ourselves ask the same ancient lament in Ecclesiastes, "What do people gain from all their labors at which they toil under the sun?"

People are constantly trying to calculate life. We place on the scales the time we have invested, the wounds we carry, the recognition we have received, and the opportunities we have lost. And at the end of all our calculations, we conclude, "Nothing remains." But a life of faith cannot be measured merely by human calculations. What looks like ttonton to us is not meaningless at all before God. Time given to God never disappears. Tears entrusted to God are never wasted. Obedience and love offered in God may not produce immediate visible results, but God receives them and uses them. We become exhausted attempting to leave something behind, but God leaves behind a legacy in ways we cannot always see or understand. Jesus, at the very moment when all appeared that nothing remained, said from the cross, "It is finished" (John 19:30). In other words, "done". Yet the place that appeared to be the moment when everything had been lost was, in fact, the place where the greatest gift in all of human history was accomplished. Therefore, what matters is not forcing ourselves to leave something behind. What matters is trusting God to be the One Who leaves something behind. Rather than trying to prove that we have accomplished everything, we entrust ourselves to God and allow Him to work. When God says, "It is done," then it is truly done. When God brings something to completion, it is not ttonton(merely breaking even). It is, in the truest sense, done done.

Even if it looks like ttonton to my own eyes, when God is at work, something remains. When we yield to God, even ttonton becomes grace, and "done done" becomes perfect completion. Our part is simply to offer ourselves to Him, trusting Him to accomplish His work and to leave behind the perfect outcome.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이충경 목사

흔들리는 순간, 머무는 삶 마태복음 11:2-15

1.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이라고 선포하고, 자기 제자까지 넘겨줄 만큼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3절)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그렇다, 내가 그다"라고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4절)라고 하시며 일어난 일들의 목록을 보내주십니다(5절). 예수님은 왜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행하신 일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3. 6절에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흔들리는 것'과 '실족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니까? 세례 요한은 흔들렸는데 왜 실족하지 않은 것일까요?
4.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7절), 예수님은 무리 앞에서 세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선지자 보다 더 나은 자'(9절)라고 칭찬하십니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오히려 최고로 높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나는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건강, 사업, 자녀, 관계, 사역 등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되지 않아서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어디로 가져가고 있는지(유튜브, 바쁨, 침묵, 혹은 예수님께) 함께 돌아봅시다.
6. 설교에서 '침노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방향을 안 바꾸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신앙에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나눠 봅시다.

적용하기



선교 후기 캄보디아 1

10살 버릇 80살까지

세상에서는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는 말을 흔히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번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통해 이 말을 좋은 의미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팀은 10대부터 80대까지 3세대에 걸친 12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황순현, 황현주 선교사님의 사역지에서 VBS, 안경, 한방, 사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달랐지만, 사역이 시작되면 누구 하나 주저하지 않고 필요한 곳을 찾아 먼저 나섰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황 선교사님 부부와 한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선교 어벤져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0대의 열정과 80대의 헌신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

이었습니다.

또한 황 선교사님 부부가 오랜 시간 섬겨 오신 학교와 개척교회, 그리고 매립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여러 사역을 직접 보고 함께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묵묵히 씨를 뿌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겨 온 두 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이번 선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돌아온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부르심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10대부터 시작된 주님을 섬기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손 내미는 이 아름다운 '버릇'이 80대까지, 아니 우리의 평생을 통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김태원 장로



교회학교 소망부

God's Wonderfully Made Community

저희 소망부(Hope Ministry)는 베델 교회학교에 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체들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담당 사역자이신 김재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TA들이 매 주일과 토요일에 섬기고 있으며, 특별히 토요학교에서는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베델의 자랑스러운 대장금 봉사자들이 계십니다.

Our Hope ministry strive to serve not only the students, but parents and families that come together and experience the wonderful joy which God has created.

저희 소망부 사역의 꿈은 장애를 가진 지체들과 저들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며,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누며 웃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Hence, it's our prayer that we are "...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Together in

Christ Jesus." (Eph 2:22)

매주일 아침에 2부와 3부의 소망부 예배는 열정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들입니다. 소망부 지체들에게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일 사역 외에 다른 사역으로는 학생들의 웃음과 믿음이 쑥쑥 자라는 특별한 토요학교가 있으며, 이번 9월부터 10주의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We ask for your participation in Hope ministry with warm-hearted prayers and support "...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His) ministry, for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저희 소망부에 대한 베델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곤 집사



Come&See 50 특집 12

베델의 여정

베델 속에서 빛어 가신 축복의 시간



2003년 성탄절, 이직 인터뷰를 위해 얼바인을 방문했다가 예배드릴 곳을 찾아 베델교회에 처음 들어섰습니다. 손인식 목사님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과 뜨거운 찬양, 기도가 어우러진 살아 있는 예배, 밝고 따뜻하며 역동적이던 교회의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2004년 얼바인으로 이주하며 베델의 한 가족이 된 후, 베델은 저희 가정의 삶과 신앙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풍요로운 얼바인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외적인 화려함보다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고 낮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교회, 말씀의 깊이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조화를 이루는 살아 있는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믿음의 선배

들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웠습니다.

지난 20여 년 베델과 함께한 날들은 모두 제게는 배움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셀목자로 섬기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고, 베델이 너무 좋아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마음으로 새가족을 섬겼습니다. 하루의 첫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했던 토요새벽성가대와 찬양팀에서의 섬김도 너무나 감사한 기억입니다. 2013년 안수집사로, 2023년 장로로 세움을 받았고, 교육부와 양육사역, 양로사역, 여러 단기선교와 주방사역에서 잊을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대각성 기도회 등 여러 기도의 자리를 통해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BAM 컨퍼런스와 훈련, BCA, 조지아 베델 선교대회 등 새롭게 시작되는 사역들에 작은 섬김으로 함께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제 능력으로는 감히 끼여들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러 한 귀통이를 맡겨 주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드렸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고 빛어 가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챕터를 여는 우리 베델교회를 지난 5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끄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키실 것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니 더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낮은 곳을 섬기며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베델교회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정광묵 장로

부설 사역 후기

한국학교 여름캠프

한국인이 자랑스러운 소중한 시간!



긴 여름방학, 아이들에게 무엇을 채워주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베델한국학교 여름캠프였습니다. 한 달을 마치고 보니 두 아이를 보내길 참 잘했다는 감사가 남습니다.

가나다라 한국어 기초부터 세종대왕, 무궁화와 태극기를 배우고, 사물놀이 악기들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색종이로 한복을 접는 등 매일 한

국의 언어와 문화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 날 배운 내용을 숙제로 저와 함께하며 종알 종알 자랑하는 아이들을 보며 최고의 여름방학임을 확신하였고,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들이 자연스



럽게 자신의 뿌리를 알아가는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한 달 동안 친구들과 준비한 반별 공연을 무사히 마치며 "나도 해냈다"는 자신감과 성

취감에 뿌듯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매일 말씀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 속 인물들도 더 알아가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선생님과 TA 언니·오빠들을 통해 섬김도 배웠습니다. 큰아이가 "나도 크면 TA가 되어 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아이가 지식뿐 아니라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마음까지 배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라며 어쩌면 쉽게 접하지 못할 한국인으로서의 뿌리와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키워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TA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희운 집사

사역 후기
셀목자 뱅킷

말씀 한 스푼



'당신이 캐스팅되었습니다 - Jump into the Movie'를 테마로 한 '셀목자 뱅킷'의 광고를 보며,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캐릭터가 나를 기쁘게 하고 이웃과 나 자신에게 기쁨과 덕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은퇴한 지 6년째인 저는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정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또한 제게는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뱅킷의 날, 셀 식구들과 함께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역팀의 세심한 준비와 다양한 프로그램, 재미있는 캐릭터들의 등장으로 웃음과 기쁨이 가득했고, 무엇보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영적으로도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웃으며 함께한 순간들을 통해, 셀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를 'Best Dress Up'으로 추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과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ary Poppins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어린 시절 쓴맛 때문에 약을 삼키지 못했던 저에게 할머니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훗날 다섯 살 된 첫째와 함께 Mary Poppins를 보며 'Just a spoonful of sugar helps the medicine go down in a most delightful way.'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Mary Poppins의 한 스푼의 설탕을 약과 함께 먹을 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가사를 'A

spoonful of 말씀 안에 미래가 있다'로 바꾸어 삶에 적용했고, 이를 통해 영적으로도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뱅킷을 통해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셀목자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수고하신 모든 사역팀과 리더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셀목자 뱅킷에 더 많은 셀 목자님들이 기쁨으로 부름받아 나서고, 그곳에서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명자 권사



저는 어바인과 베델에 온 지 1년 조금 넘은 한 병준입니다. 아내와 함께 신혼부부 목장인 튜라 셀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번 봄 학기부터 셀 목자를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처음으로 셀 목자 뱅킷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베델교회가 셀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셀 목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육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많은 분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며, 맛있는 커피와 팝콘을 즐기는 가운데 여러 목자님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섬기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날만큼은 오히려 제가 온전히 환영받고 사랑받는 시간을 보내게 되니, 이 자리를 위해 애써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본 행사가 시작된 후에는 같은

테이블에 앉은 저희와 비슷한 또래의 목자님들, 그리고 베델과 셀 사역을 수십 년 동안 섬겨 오신 집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대와 섬김의 시간은 서로 달랐지만,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모두가 한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게임을 통해 좋은 상품까지 받게 된 것도 또 하나의 감사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아내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조용히 그날 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셀목자로서의 섬김을 희생이나 책임감으로 내세우기보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셀 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먼저 깨닫게 해 주는 이 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셀 목자로서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진정한 'response'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학기에는 이날 제가 받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셀원들에게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셀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셀 모임을 만들어 가는 셀 목자가 되겠습니다.

한병준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예식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식채플: 공병주 목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순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한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식 위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한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Beyond the Blue(B+B)

Beyond the Blue는 사별과 이혼, 그리고 다양한 관계의 상실로 인해 상처받은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내적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가정 회복 치유 사역이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 147:3)

매주 서로 다른 주제로 진행되며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전문적인 회복 프로그램과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각자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며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며 힘겨운 시간을 견디지 마십시오. Beyond the Blue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의 쏜뿌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견고한 진이 무너져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며 또한 베델교회와 Beyond the Blue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 기간: 9월 4일(금)~12월 4일(금), 13주 과정

▶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장소: 베델교회 조이채플(교회 사무실 옆방)

▶ 비용: \$40(교재비)

▶ 신청 방법: 베델교회 홈페이지

▶ 문의: 전정례 권사 (714)240-3718, 오경희 전도사 (262)224-7797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9월) |

9/13: ①부-오상현	②부-안성희	③부-이길수	④부-나승채
9/20: ①부-안지호	②부-여홍평	③부-윤주원	④부-신영록
9/27: ①부-유형석	②부-이국선	③부-윤태경	④부-이진호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9,10월) |

9/12: 이연택	9/19: 이장한	9/26: 이용준	10/3: 이현동
-----------	-----------	-----------	-----------

강단꽃(9월) |

9/6: 성홍숙, 오영옥, 최혁성	9/13: 전정례	9/20: 김미숙, 김순옥	9/27: 선상균, 윤태경
--------------------	-----------	----------------	----------------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재호(한외과), 간호사-이옥선

다음주 | 의사-박종구(치과), 간호사-이정하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가나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김예평(김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i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김한요 목사와 함께 떠나는 마지막 수요일말씀여행** 인생바다에서 만난 구명선, 이번 주 수요일(9일)은 담임목사님과 함께 구원론의 핵심을 배우는 수요일말씀 여행 제5강 '구원의 결과'가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후반 4주를 모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소정의 선물이 준비됩니다. 기대함으로 끝까지 말씀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일시/장소: 9월 9일(수) 저녁 7시, 본당
자녀돌봄: 유아·유치 및 K-5학년
대상문의: 조광종 집사 (949)706-4168

◆ **나무엔 찬양 콘서트**
아름다운 시와 서정적인 멜로디로 찬양을 드리는 찬양사역자 나무엔과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9월 13일(주일) 오후 4시 베델그레이스(EM) 채플에서 있습니다

◆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BCA) 비전헌금**
오늘은 말씀 위에 다음 세대의 생각과 삶을 세우는 BCA를 위해 비전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고전 기독교 교육'을 통해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바르게 생각하며 사랑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베델교회의 비전에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949)854-4013, admin@bethelclassical.org

◆ **셀 개강 안내**
오늘부터 2026년 하반기 셀이 개강합니다. 말씀과 삶을 나누는 가운데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상반기 셀모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셀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본당 앞 셀사역 부스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새학기 교회학교를 위한 금식기도**
베델 교회학교는 새학기를 맞아 개인의 신앙과 교회학교를 위한 금식기도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번 금식기도는 개인 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과 가정을 위해, 또 한 번은 교회학교와 자녀가 속한 부서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학교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BYM QARA 'I believe' 금요 프로그램 신청**
영어중등부 금요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맛있는 저녁식사와 함께 찬양과 예배, 소그룹 교제, 그리고 다양한 게임 및 활동을 통해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간/등록비: 9월 25일(금)-12월 11일(금), \$60
시간/장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저녁 식사: 오후 6시-7시), 비전채플
문의: 신재민 전도사 (949)405-1712



◆ **새학기 교회학교 교과와 TA 모집**
베델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를 함께 섬겨 주실 주일 교사 및 TA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각 부서 담당 목회진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영아부(한어): 2부 TA 2명
- 초등부(영어): 3부 교사 1명
- CIM(한어 중고등부): 3부 교사 2명
- BYM HOLOS(영어 고등부): 2부 여자 교사 1명

◆ **큐티인 9월호 판매**
QTin 9월호를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9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축하해 주세요**
2024년에 개척한 더베델교회(강문구 담임목사) 설립 2주년을 축하합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김원순 권사님(김치중 집사의 모친, 이정현 집사의 시모)께서 지난 8월 29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김태영 집사님(강경혜 집사의 부친, 강영재 집사의 장인)께서 9월 3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오승현 목사님(오윤모 집사의 부친, 이진경 집사의 시부)께서 9월 3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Choong Kyung Lee

In Time of Shaking, A life That Stays

Matthew 11:2–15

- 1.** John the Baptist boldly announced Jesus as 'the Lamb of God' and even encouraged his own disciples to follow Him. But while in prison, John asks, "Are you the one who is to come?"(v. 3). Why do you think John became so shaken?
- 2.** Jesus does not answer John with a direct "Yes, I am." Instead, He says, "Tell John what you hear and see"(v. 4), and shares a list of things happening around Him (v. 5). Why do you think Jesus did not answer directly, but instead pointed to His works?
- 3.** In verse 6, Jesus says, "Blessed is anyone who does not stumble on account of m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shaken and stumbling? John was shaken, but why do you think he did not stumble?
- 4.** After John's disciples left (v. 7), Jesus spoke to the crowd and praised John—not as a reed shaken by the wind, but as 'more than a prophet'(v. 9). Why do you think Jesus offered such high praise to someone who was going through a moment of doubt?
- 5.** Is there anything in your life right now that feels a bit shaken? Whether it involves your health, work, children, relationships, or ministry, feel free to share if things have not been unfolding the way you envisioned. When those moments come, where do you usually turn—to YouTube, to staying busy, to withdrawing in silence, or to Jesus?
- 6.** The sermon mentioned that 'the violent/forceful who take the kingdom are not those who never shake, but those who keep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even when they do.' In your own walk of faith, what does it mean to keep your eyes fixed on Jesus? What is one simple action you can practice this coming week?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